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7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8. 17.

목 차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4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10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18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2021년 6월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이전 달 대비 40% 감소

- CNBC에 따르면 6월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5월 대비 40% 감소했으며, 6월 최대 거래일이었던 22일 거래 규모는 1,382억달러로 5월 최대 거래일 대비 42.3% 감소함 (2021. 7. 13.)

* 출처 : 가상자산 거래 크게 감소...6월에 40%↓ (파이낸셜뉴스 윤재준 7/13), <https://www.fnnews.com/news/202107131503548377>

- ▶ 이 같은 거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서 비트코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반면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인 카이코의 클라라 메달리 이사는 6월 거래량 급감에도 1년 전에 비하면 많은 것이며, 5월의 거래량이 역대 최대여서 감소폭도 컸다는 점을 상기시킴
- ▶ 또한 그는 6월에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월별 거래 규모에서 상위 5위 안에 포함됐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도 거래량은 더 많았다고 강조함

□ 4대 거래소 누적 가입자 656만명, 총 예치금 6조 8,900억원

-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월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7월 현재 4대 거래소 누적 가입자 수는 656만명, 예치금은 6조 8,900억원으로 가입자 한 명당 평균 110만원 상당을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 (2021. 7. 13.)

* 출처 : 금융위 "4대거래소 누적 가입자 656만명, 총 예치금 6조8900억원" (코인데스크코리아 정인선 7/13),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51>

- ▶ 은성수 위원장은 “누적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증가 속도는 줄어들었다”면서 “예컨대 5월 첫 주 신규 가입자가 4만 8,000명이었던 데 비해 지금은 주당 5,000명 수준”이라고 덧붙여 말함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70%, 가상자산 미래 유망하다고 판단

- 한화자산운용이 일반 성인남녀 53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70%가 가상자산이 유망한 미래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답변함 (2021. 7. 6.)

* 출처 : 韓 투자자 70% "가상자산, 유망한 미래자산" (파이낸셜뉴스 김소라 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69890?sid=105>

- ▶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유망한 미래 투자자산으로 인식해 투자하는 경향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높은 변동성으로 게임 같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8%, 33%를 차지함
- ▶ 반면 주변에서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해 투자를 시작한 경우는 전체의 10.8%로 전체 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성별로는 여성 36%, 남성 43%로 남성의 디지털 자산 투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디지털 자산 투자 규모는 △ 100만원 미만(24%) △ 100만~1,000만원(43%) △ 1,000만~5,000만원(20%) △ 5,000만~1억원(5%) △ 1억원 이상(8%)로 100만~1,000만원대 규모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기관투자자 90%, 비트코인 5년내 포트폴리오에 포함

- 조세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올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 기관투자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이미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약 90%는 회사 또는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향후 5년 이내에 디지털 자산 투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함 (2021. 7. 20.)

* 출처 : 기관투자자 90%, 비트코인 5년내 포트폴리오에 포함 (조세일보 백성원 7/20), <https://n.news.snaver.com/mnews/article/123/0002250675?sid=004>

**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Fidelity Digital Assets) 의뢰, 코올리션 그린위치(Coalition Greenwich) 조사

□ 스테이블코인 시총 1,104억 달러

- 가상화폐 분석 회사 메사리에 따르면 미 달러화와 1대 1로 교환 가능한 주요 스테이블 코인 6종의 시가총액은 1,104억 달러로 연초(286 달러) 대비 네 배 규모로 급등함 (2021. 7. 21.)

* 출처 : 스테이블코인 시총 1100억弗...“암호·법정화폐 장점 갖춰” (한국경제 박진우 7/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81546?sid=101>

- ▶ 메사리는 가치가 법정화폐에 고정돼 있을 뿐 아니라 송금에 유리하며 은행 없이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 수수료 없이 짧은 시간 내에 해외 송금까지 할 수 있어 가상자산의 장점과 법정화폐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분석

□ 비자카드 가상자산 결제액 10억 달러 돌파

- 글로벌 신용카드사 비자카드가 올 상반기 자사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결제액이 10억 달러(약 1조 1,445억원)를 돌파했다고 밝힘 (2021. 7. 8.)

* 출처 : 비자카드 가상자산 결제액 10억달러 돌파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7/8),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756>

- ▶ 바산트 프라부 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CNBC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보다 편리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라면서 “가상자산 활동폭을 더욱 넓히는 것이 비자의 목표” 라고 밝힘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국 외

○ IMF·세계은행·BIS, G20에 글로벌 CBDC 제안

-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등 세계 3대 금융기관이 G20에 효율적인 기술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국경간 네트워크를 제안함 (2021. 7. 12.)

* 출처 : [글로벌포스트] IMF·세계은행·BIS, G20에 '글로벌 CBDC' 제안 (파이낸셜뉴스 이구순 7/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72571?sid=105>

-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개 글로벌 금융기관은 공동 연구 보고서를 통해 “CBDC의 영향력이 국경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글로벌 CBDC 활용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CFT) 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 또한 3개 금융기관은 “CBDC의 글로벌 활용을 위해 상호운용성이나 국제 결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CBDC 간에 공통 표준을 설정하는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CBDC 개발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CBDC와 기존 결제 시스템 간에 상호운용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 그러면서 보고서는 “일부 중앙은행은 이미 국제 송금을 모색하고 있다”며 “홍콩, 태국, 중국 및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중앙은행 간의 다중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브리지(m-CBDC) 프로젝트는 범아시아 결제 네트워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

○ 유럽중앙은행(ECB)

- ECB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화 발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힘 (2021. 7. 15.)

* 출처 : 디지털 화폐 속도전... ECB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 착수 (파이낸셜뉴스 강규민 7/15), <https://www.fnnews.com/news/202107151836078484>

- ▶ ECB는 먼저 디지털 유로화 설계를 위한 2년간의 조사 작업에 착수하며, 은행, 소비자를 아우르는 이해 당사자 간 논의를 진행해 디지털 유로화의 원형을 만들고 개념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 또 ECB는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로 그룹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제화 작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ECB 대신 디지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은행과 핀테크 회사의 역할도 정의할 방침이라고 설명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들과 기업들이 가장 안전한 형태의 통화인 중앙은행 통화로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함

○ 미국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의장은 하원에 출석해 오는 9월 발표될 FED 차원의 디지털 화폐(CBDC)에 관한 보고서에 FED 위원들이 점검한 내용이 담길 것이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더라도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2021. 7. 16.)
- * 출처 : 파월 ‘디지털 달러 발행’ 예고…암호화폐 시장 가시밭길 가나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7/16), 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107160835468518d0a8833aad_23
- ▶ 조선일보는 미국 연준이 표면적으로는 금융 소외층의 편의 증진과 거래 비용 감소 등을 CBDC를 추진하는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비트코인과 중국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견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분석 (2021. 7. 16.)
- * 출처 : [news Q] 연준 파월이 ‘디지털달러’에 안달난 이유... 4문답으로 알려드립니다 (조선일보 김신영 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27185>

○ 중국

- 뉴스원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 중국인민은행이 16일 디지털 위안 연구개발에 관한 백서를 통해 디지털 위안 거래액이 345억 위안 (약 6조 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2021. 7. 19.)
- * 출처 : 중국 ‘디지털 위안’ 실험 착착 진행, 거래액 6조 돌파 (뉴스원 박형기 7/19), <https://www.news1.kr/articles/?4376470>

- ▶ 중국인민은행은 또 중국 전역에서 2,080만명 이상이 디지털 위안용 가상지갑을 개설했으며, 모두 7,07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했으며, 디지털 위안의 설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개발은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앞으로 실험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 디지털통화 관련 위원장인 무라이 히데키 의원은 내년 말이면 일본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엔화의 형태와 기능 등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발언 (2021. 7. 5.)

* 출처 : 日 자민당, 내년말 디지털 엔화 형태·기능 구체화한다 (뉴스원 신기림 7/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56825?sid=104>

- ▶ 무라이 의원은 일본이 CBDC 발행 여부를 내년 말 즉각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CBDC 발행이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일본은행(BOJ)이 CBDC를 발행하면 금융기관과 결제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함
- ▶ BOJ는 민간금융의 발 빠른 혁신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지난 4월 CBDC 연구실험의 첫 단계를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넘어가 어떤 주체가 BOJ와 CBDC 보유자 사이를 매개할지와 같은 주요 기능을 개괄적으로 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가나

- 가나 현지 매체인 모던 가나의 보도에 따르면, 7월 9일 가나 중앙은행 제1부총재 맥스웰 오포쿠-아파리(Maxwell Opoku-Afari)는 언론인 단체가 주재한 포스트 코로나의 통화 정책 이해라는 주제의 워크숍에 참석해 CBDC 디지털 세디(Cedi)가 최종 단계에 있으며, 오는 9월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함 (2021. 7. 13.)

* 출처 : 가나 중앙은행, 9월에 CBDC 시범운용한다 (코인데스크코리아 Sebastian Sinclair 7/13),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42>

- ▶ 오포쿠-아파리 부총재는 CBDC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상거래 및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나타난 것이고 이는 공식적으로 디지털영역에 진입하여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하며, “플랫폼 내 디지털 거래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 이라고 말함

○ 우크라이나

-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가 1일(미국시간) 결제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흐리브냐(hryvnia)를 현금과 은행 계정, 전자결제 수단과 동등하게 보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전자적 형태의 은행 계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힘 (2021. 7. 2.)

* 출처 : 우크라이나 의회, CBDC=현금 법안 의결 (코인데스크코리아 Anna Baydakova 7/2),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6>

-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 시장, 기업 및 소매 비즈니스, 공공 부문, 암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0명의 금융 전문가에게 30개 질문 세트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e-흐리브냐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발표함 (2021. 7. 12.)

* 출처 : 우크라이나 금융전문가 중앙은행 설문서 암호화폐 기반 CBDC 거래 촉진 압도적 지지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7/12),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71123152664369ecba8d8b8_1&md=20210712030443_R

○ 엘살바도르

- 코인포스트는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난 6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데 이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2021. 7. 19.)

* 출처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이어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7/19),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011>

- ▶ 이 매체는 현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10년 전 폐지한 콜론을 되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디지털 콜론’ 발행을 통해 가능한 자국 화폐 부활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함

○ 인도

-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의 중앙은행이자 인도 법정화폐인 루피의 발행 및 은행 시스템 규제를 담당하는 인도준비은행의 티 라비 산카르 부총재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IT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CBDC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 중” 이라고 말함 (2021. 7. 23.)

* 출처 : 인도, ‘디지털 루피’ 준비한다...”CBDC를 위한 시간 가까워져” (블로터 이건한 7/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35683?sid=105>

- ▶ 산카르 부총재는 도소매 분야를 포함해 특정 목적의 CBDC 활용성, 위험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왔으며 이제 CBDC를 위한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CBDC가 현금 의존도를 낮추고 더 원활한 국제 정산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전문가들은 인도가 CBDC를 통해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의 리더십 제고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 국 내

- 한국경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10만원권 도입 등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2021. 7. 13.)

* 출처 : 한은, 디지털화폐·10만원권 도입 여론조사 (한국경제 김익환 7/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77608?sid=101>

- ▶ 7월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 행태’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가구주(1인 이상 가구) 1,500명과 기업(현금 거래가 많은 편의점, 상점 등)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

- ▶ 디지털 화폐 설문 내용에는 일반인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발행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디지털 화폐의 액면 단위로 얼마를 선호하는지, 실물 카드와 계좌 가운데 어떤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이 담길 예정
-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5일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자 공고를 내고 7월 12일 입찰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일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 X가 모의실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힘 (2021. 7. 20.)
 - * 출처 : 카카오 그라운드X, 한은 CBDC 모의실험 따냈다 (매일경제 이지영 7/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99204/>
 - **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 X, 네이버 계열의 라인플러스, SK주식회사
- 디센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실험에서 체크 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오프라인 CBDC 카드를 실험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2021. 7. 21.)
 - * 출처 :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에 '실물카드' 도입한다 (디센터 노윤주 7/21), <https://decrypter.kr/NewsView/22P001IWZI>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2개월 동안 분석한 ‘가상자산과 가상 자산사업자(VASP) 관련 규정에 대한 국제 표준’ 검토를 완료하고, 7월 5일 보고서를 발표함 (2021. 7. 6.)

* 출처 : FATF, ‘더 싼 규제’ 담은 최신 보고서 공개 파장...제3 가상자산 폭락 사태 ‘오나’ (전자신문 이형두 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2955808?sid=101>

▶ FATF는 지난 2019년 6월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AML · CFT)를 목적으로 한 15가지 권고 사항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기준 시행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검토를 거쳐 1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보고서는 두 번째 검토 결과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FATF가 관할하는 128개 지역 중 58개는 개정된 국제 표준을 구현했으나, 나머지 70개 지역은 아직 자국법에 개정된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FATF는 이와 같은 격차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가상자산과 VASP가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체제가 아직 없음을 의미하며, 특히 민간 부문에서 VASP가 ‘트래블 물’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솔루션 및 규정 준수 인프라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함

▶ FATF는 효과적인 국제 표준 적용을 위해 오는 11월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 연합뉴스는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드 등의 보도를 인용, 와이오밍 주 정부가 탈중앙 자율조직 기업인 ‘더 아메리칸 크립토펬드 다오’ **를 합법적인 법인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함 (2021. 7. 6.)

* 출처 : - 사장도 부서도 없다...블록체인 적용 ‘다오’ 기업, 美 첫 인정 (연합뉴스 정윤섭 7/6),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067200075?input=1195m>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조직

▶ 더 아메리칸 크립토펬드 다오는 달러화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회사로 최고경영자(CEO)나 관리자, 영업 활동 지원 부서가 없는 탈중앙 자율조직 기업이며, 블록체인이 적용된 컴퓨터 암호화 프로그램에 기반해 회사를 운영하고 주요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수의 관리자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의사 결정권과 조직 통제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임

▶ 와이오밍 주는 미국 최초로 ‘더 아메리칸 크립토펬드 다오’를 특정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하면서 영업 활동을 허가함

- 매일경제에 따르면 톰 에머, 대런 고토, 로 칸나 등 하원의원이 기존 증권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규정하는 증권 투명성법을 발의함,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 상 ‘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톰 에머 의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의 판매와 거래가 연방 증권법에 대해 현재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 같은 명확성 결여가 미국의 혁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함 (2021. 7. 16.)

* 출처 : 트위터 CEO “BTC 중점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계획” 등 (매일경제 코인뉴스 7/1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85557/>

- 코인리더스는 유투데이 보도를 인용, 미국 테네시주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인 잭슨 카운티(Jackson County)가 비트코인 재산세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2021. 7. 16.)

* 출처 : [글로벌 코인계 동향] 일본 금융청, 디지털화폐·디파이 감독 부서 설립 외 코인리더스 박소현 7/16), <http://m.coinreaders.com/11680>

▶ 잭슨카운티 시장 스캇 쿡거는 지난 4월 잭슨 카운티 경제에 암호화폐 통합 계획을 처음 발표하고 같은 달 블록체인 TF를 출범시켰으며, “잭슨카운티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는 직원들의 달러비용평균법(DCA)을 적용한 비트코인 매수를 권장한다”고 밝힘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익명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 강화책을 발의함 (2021. 7. 21.)

- * 출처 : EU, 135만원 이상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룰 적용법 발의 (코인데스크코리아 함지현 7/21),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42>

○ 베트남

-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팜 민 쯔(Pham Minh Chinh) 총리가 베트남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2년 이내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통화 구현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함 (2021. 7. 5.)
- * 출처 : 베트남 총리, 중앙은행에 디지털 통화 시범 사업 요구...암호화폐 배척 태도 바뀌나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7/5),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7051848132379ecba8d8b8_1&md=20210705185009_R
- ▶ 암호화폐는 베트남 총리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정부 설립에 관한 결정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지만, 암호화폐를 마스터 하기 전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통화 및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 정의를 채택하고 암호화 공간을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재무부에서 지난해 4월 실무 그룹을 구성해 이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음

○ 콜롬비아

-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콜롬비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Colombia)이 콜롬비아 최초의 블록체인 채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발표함 (2021. 7. 24.)
- * 출처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기술 채권까지 확대...콜롬비아 중앙은행 발행 시범 프로그램 가동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7/24),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72421441792519ecba8d8b8_1&md=20210724224003_R
- ▶ 콜롬비아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채권 프로그램 참여는 잠재적인 운영 비용 절감, 프로세스 시간 최적화, 운영 추적 가능성 및 보안 효율성 향상, 정보 비대칭 제거, 재무 관리 개선에 이점이 있음
- ▶ 이 채권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력한 민간 상업 은행 중 하나인 다비비엔다(Dacicienda)가 발행하고, 미주개발은행(IDB)이 자문을 맡게 되며,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신기술의 이점을 탐색하고 차기 채권 발행에 대한 적용을 연구하게 됨

○ 아르헨티나

- 호세 루이스 라몬(José Luis Ramón) 멘도사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일부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함 (2021. 7. 9.)

* 출처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승인 이어 아르헨티나선 근로자 임금 지급 새 시도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7/9),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0900245472749ecba8d8b8_1/article.html?md=20210709003033_R

□ 국 내

○ 금융위원회

- 이투데이는 8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7월 31일에서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고 보도 (2021. 7. 9.)

* 출처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운영 2년 연장 (이투데이 김범근 7/9),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3008>

▶ 금융혁신기획단은 혁신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신산업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금융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위가 별도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권법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이 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기부, 기재부, 다른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조실을 통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고 답변함 (2021. 7. 13.)

* 출처 : 은성수 “과기부·기재부와 암호화폐 법안 검토중” (뉴스토마토 김연지 7/13),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58992&inflow=N>

-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정부 입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음 (2021. 7. 6.)

- * 출처 : 은성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내부적으로 검토중” (아이뉴스24 이효정 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608975?sid=101>
- 더벨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 주무 부서를 올 하반기 출범키로 함 (2021. 7. 9.)
- * 출처 : 금융위, 가상자산 주무 부서 하반기 출범 (더벨뉴스 이장준 7/9),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107070904437840107767>
- KBS는 위와 같은 조직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행안부 ‘부처별 소요정원 요구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FIU 정원을 현재 69명에서 91명으로 늘리고, 국장급 1명을 신설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함 (2021. 7. 26.)
- * 출처 : 금융위, 행안부에 ‘가상화폐 전담’ 국장급 포함 22명 증원 요구 (KBS 김범주 7/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90012?sid=101>
- ▶ FIU는 현재 2실(기획행정실·심사분석실), 4과(제도운영과·심사분석1~3과) 체제이지만, 금융위 요구안 대로 증원된다면 2국 3과 1팀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장을 보좌할 국장이 필요하다” 라고 증원 요청 이유를 설명함
- 조선비즈는 21일 금융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이 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 유예 기간 종료 이후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 보도함 (2021. 7. 22.)
- * 출처 : [단독] 금융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 규제 대상” (조선비즈 조귀동 7/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48520?sid=101>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기준 공개

-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함 (2021. 7. 9.)

* 출처 : 은행연합회,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 기준 공개 (이코리아 임해원 7/9),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60>

▶ 은행연합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평가방안은 ▲ 필수요건 점검 ▲ 고유위험 평가 ▲ 통제위험 평가 ▲ 위험등급 산정 ▲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함

○ 與, 가상자산 TF 2차·3차 회의

-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업권법 제정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힘 (2021. 7. 5.)

* 출처 : “가상자산, 독립된 업권법으로 가닥” 與, 코인 제도화 추진 방향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송주용 7/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69300?sid=100>

- 뉴스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함 (2021. 7. 27.)

* 출처 : 가상자산 거래소 만난 與, “중소거래소 실명계좌 대안 살펴보겠다” (뉴스원 김근욱 7/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05820?sid=105>

▶ 이날 회의에는 유동수 TF 단장, 김병욱 TF 간사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가 참석함,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와 거래소 대표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짐, 또 금융감독원의 직접 규제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 형태를 중심에 두고 거래소 규제 방법을 논의함, 다만, 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인가제와 허가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음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 서울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2년 부과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더 유예하고 현행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함 (2021. 7. 6.)

* 출처 :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서울경제 주재현 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33072?sid=100>

- ▶ 해당 개정안에는 과세 적용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연기시키는 조항,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조항이 포함됨,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금융자산 수익과 합산해 연 5,0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됨
- ▶ 노 의원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나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누진세가 적용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법 발의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7월 9일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계 발의함

* 출처 : 백가쟁명식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실효성 있을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7/14),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379>

- ▶ 권은희 의원은 해당 법안의 목적이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가상자산 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해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

○ 특금법 신고 기한 3개월 유예 법안 발의 예정

- 27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 (2021. 7. 27.)

* 출처 : 조명희 의원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 더 연장해야" (코인데스크코리아 정인선 7/27),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41>

- ▶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폐업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고 기한을 3개월 유예하자고 제안하는 이유 설명

○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위키트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의 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2021. 7. 28.)

* 출처 :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위키트리 노해섭 7/28),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73768>

- ▶ 이 법안은 ▲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코인베이스

- 미국 최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탈중앙화 경제를 포괄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앱스토어 구축 계획을 공개함 (2021. 7. 1.)

* 출처 : 코인베이스 "글로벌 가상자산 앱 스토어 출시할 것"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7/1),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50>

- ▶ 디지털투데이는 이미 애플 앱 스토어와 유사한 방식의 디앱 스토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함, 아울러 탈중앙화 앱은 물론 NFT와 디파이(DeFi), 디지털 지갑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앱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계획으로 예상

○ 소로스 펀드 비트코인 거래 시작

- 파이낸셜뉴스는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해 소로스 펀드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디지털 자산 부분을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으며, 소로스 펀드의 가족 사무실이 이미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고 보도함 (2021. 7. 1.)

* 출처 : '월가 큰손' 소로스 펀드, 비트코인 거래 시작 (파이낸셜뉴스 강규민 7/1), <https://www.fnnews.com/news/202107010914587897>

- ▶ 소로스 펀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주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로스 펀드는 현재 가상자산 수탁을 전문으로 하는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출처 : 전설적 헤지펀드인 '소로스펀드' 사내 비트코인 투자 승인 (일요신문 김태현 7/4),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5984

○ 비트코인 탭루트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

-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애토니 타운스 등 비트코인 개발자는 탭루트(Taproot)가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됐음을 확인함 (2021. 7. 14.)

* 출처 : 비트코인 탭루트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 (농업경제신문 임해정 7/14),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210714110438318542ef4e12e4_17

○ 일론 머스크

-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The B word’ 컨퍼런스에 참석해 본인이 설립한 기업 중 하나이자 우주 탐사기업인 스페이스X가 구체적인 보유량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 (2021. 7. 22.)

* 출처 : 머스크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 보유...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 재개할 수도" (디지털데일리 박현영 7/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07285?sid=105>

▶ 이어서 그는 지난 5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일시 중단 소식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이후 진행된 해당 컨퍼런스에서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JP모건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 19일부터 모든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짐 (2021. 7. 23.)

* 출처 : [글로벌포스트] JP모건, 가상자산 펀드 판매 개시 (파이낸셜뉴스 이구순 7/23),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0001?sid=105>

▶ JP모건 자산관리 직원들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가상자산 펀드 4개, 오스프리 펀드의 가상자산 펀드 1개 등 5개의 가상자산 펀드 매매 주문을 받아 실행할 수 있음, 단 JP모건 자산관리 직원들은 직접 제품을 추천할 수 없으며, 고객의 주문을 대신해 구입하거나 판매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o 마스터카드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자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요청하면, 시스템 내부에서 USDC로 변환한 뒤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테스트를 진행중으로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해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21. 7. 21.)

* 출처 : 마스터카드, 가상자산 결제에 USDC 활용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영일 7/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78724?sid=105>

o 아마존

- 영국 매체 AM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상품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익명의 아마존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마존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하고, 점차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를 늘려갈 것” 이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연내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2021. 7. 26.)

* 출처 : [글로벌포스트] “아마존, 연내 비트코인 결제 시작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구순 7/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1007?sid=105>

▶ 그러나 26일(현지시간) 아마존은 “가상자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 며, “우리는 가상자산이 아마존 고객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연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2021. 7. 27.)

* 출처 : ‘아마존 결제’ 소문에 울고 웃은 비트코인 [코인 시세] (한국경제 김대영 7/27),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72940g>

o 소프트뱅크

-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브라질 최대 가상자산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에 2억달러(약 2266억원)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소프트뱅크의 중남미 가상자산 기업 투자 중 최대 규모임 (2021. 7. 2.)

* 출처 : [글로벌포스트] 소프트뱅크, 브라질 가상자산 거래소에 2천억 투자 (파이낸셜뉴스 이구순 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67663?sid=105>

○ 시그넬

- 더 블록에 따르면 스위스 암호화폐 친화은행 시그넬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함, 이는 은행 최초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로 시그넬 고객들은 보유한 ETH를 은행에 스테이킹 하고 연간 최대 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21. 7. 6.)

* 출처 : [글로벌 은행 동향]스위스 암호화폐 친화은행, 은행 최초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외 (코인리더스 박소현 7/6), <http://m.coinreaders.com/a.html?uid=11544>

○ बैं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한 BOA 내부 문서에 따르면 BOA가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 연구팀을 신설할 것으로 보도 (2021. 7. 9.)

* 출처 : BOA, 美 은행 첫 가상화폐 관련 전담 연구조직 신설 (조세일보 백성원 7/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49938?sid=004>

▶ 이 내부 문서에 따르면 팀의 수장은 이전 글로벌 기술 전문가팀을 담당했던 알케시 샤(Alkesh Shah)가 맡을 예정이며 맘타 제인(Mamta Jain)과 앤드류 모스(Andrew Moss)가 합류할 예정임

○ 모노뱅크

-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모바일 은행 모노뱅크(Monobank)가 암호화폐와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표함 (2021. 7. 8.)

* 출처 : 우크라이나 모바일 은행 모노뱅크, 카드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 상품 서비스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7/8),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70800094854709ecba8d8b8_1&md=20210708001119_R

▶ 이르면 이달 중 론칭하는 비트코인 카드도 그중 하나로 이에 따라 모노뱅크 고객은 7월 말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새로운 은행카드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됨, 이러한 사실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올레그 고록호프스키(Oleg Gorokhovskiy)가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하면서 알려짐

□ 국 내

○ 우리은행

- 이데일리가 금융업권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우리은행이 디지털 자산 수탁사 ‘디커스터디’를 설립해 출범할 예정 (2021. 7. 11.)

* 출처 : 우리은행,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진출 (이데일리 김유성 7/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1915?sid=101>

▶ 이는 일종의 디지털자산 보관 서비스인 셈으로 암호화폐를 비롯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기반한 증권형 토큰 등도 보관할 수 있고, 개인이 거액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범하게 된 것으로 예상

○ NXMH

-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넥슨 지주사인 NXC의 투자 전문 자회사 NXMH(NXMH B.V.B.A.)가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홀딩스 (Bitstamps Holdings N.V.) 증자에 참여해 2,000억원대를 투자하기로 함 (2021. 7. 20.)

* 출처 : 넥슨,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에 2000억원대 투자 (아시아투데이 김아련 7/20),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720010011811>

▶ 20일 비트스탬프 홀딩스 공시에 따르면 NXMH로부터 1억 5,300만 유로(약 2,075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함, 이번 결정은 지난 8일 벨기에 브뤼셀 본사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 총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증자를 위해 총 1억 5,348만 4,913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한 주당 1유로로 즉시 주주들이 인수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임

○ 미래에셋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를 추진할 예정임 (2021. 7. 23.)

* 출처 : 미래에셋, 캐나다 이어 미국서 비트코인 ETF 출시 추진...SEC에 신청 (더구루 홍성환 7/23),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502>

▶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인 ‘글로벌X 비트코인 트러스트(Global X Bitcoin Trust)’의 상장을 신청함

○ 국민연금공단

- 더퍼블릭에 따르면 공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1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연구하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함 (2021. 7. 21.)

* 출처 : 국민연금공-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기술 확산’ 맞손 (더퍼블릭 김미희 7/21), <https://m.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5180820370>

-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부터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